

『扶桑略記』에서 본 불상 도래에 관한 인식

松本真輔*

(e-mail: nosmoke@khu.ac.kr)

目次

1. 들어가며
 2. 불상이라는 관점
 3. 『부상약기』 불교 전래 기사
 4. 『부상약기』 첸코지 연기와 司馬達等の 신앙
 5. 맺음말
-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헤이안 시대 말기에 편찬된 『扶桑略記(부상약기)』를 소재로 일본 불교 전래에 관한 인식을 불상 도래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불교 전래라고 하는 것은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불교가 전달된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538년 전래설과 552년 전래설인데, 자료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한 적이 있는데¹⁾, 연대적인 문제는 있지만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달되었다는 부분은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²⁾. 또한 전달된 불교의 내실에 관해서도 불상 전래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자료가 많은 것도 확인 할 수 있다³⁾.

* 慶熙大学校教授 (古典文学)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松本真輔(2011) 『四天王寺와 善光寺의 縁起에서 본 백제 인식--불교 전래설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7-2) 가 자세히 논하고 있다.

2) 동 주(1)

3) 동 주(1)

그런데 이러한 불교 전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계승되었을까. 이 논문에서는 11세기 말경에 편찬된 불교적 요소가 강한 역사서인 『부상약기』 불교 전래 기사를 소재로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부상약기』는 比叡山(히에산) 延曆寺(엔라쿠지)에 소속하는 승려인 皇円(코엔)이 편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부상약기』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神武(진무) 천황부터 堀河(호리카와) 천황의 시대인 1094년(寬治8)까지 기사가 있는데 일부는 상실되어서 남아 있지 않다. 초록 형식이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 이 책 자체가 일차자료로 이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한편 이 책에는 현존하지 않은 자료들(소위 말하는 산일 문헌)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연기이나 승전자료로 주목되는 경우가 많았다⁴⁾. 이 논문에서는 『부상약기』에 보이는 불교사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헤이안 시대에 쓰인 문헌 중 일본 불교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헌인 만큼 이 책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이 헤이안 시대에 널리 알려졌던 삼국의식 또한 이 논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삼국의식이란 불교가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역사관을 가리킨다. 삼국의식에 대해서도 이미 자세한 연구가 있는데⁵⁾, 헤이안 시대에 쓰인 『今昔物語集(곤자쿠 이야기 집)』, 가마쿠라 시대에 쓰인 『三國伝灯記(삼국전등기)』나 『三國仏法伝通縁起(삼국불법전통연기)』, 무로마치 시대에 쓰인 『三國伝記(삼국전기)』 등, 삼국의식을 전제로 일본 불교사를 기술한 문헌이 적지 않다. 이 문헌들에는 고대문헌과 달리 백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⁶⁾.

이러한 삼국의식이 대두하기 시작했던 헤이안 시대 말기에 편찬된 『부상약기』는 백

4)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론적 성격이 강하다. 平田俊春(1956) 「扶桑略記逸文」(『防衛大学校紀要 人文・社会科学編』1)、小西徹竜(1983) 「『扶桑略記』逸文再考」(永島福太郎先生退職記念会編『日本歴史の構造と展開』山川出版社)、原田 行造・竹村 信治(1982、1983) 「説話資料収集ノ一ト扶桑略記』逸文資料編」(『金沢大学教育学部紀要 人文科学・社会科学編』32、32) 등은 잃어버린 『부상약기』 본문에 관한 논고이고, 堀越光信(1986) 「『扶桑略記』所引「日本三代実録」逸文考(上・下)」(『皇学館論叢』19-2、19-3)、達日出典(1987) 「大学頭明衡筆「清水寺縁起」と「扶桑略記」所引清水寺縁起」(『日本仏教史学』22)、宇佐美正利(1989) 「『扶桑略記』の引用--「日本往生極楽記」の場合」(『駿台史学』75)、宇佐美正利(2001) 「『扶桑略記』の史料引用--『日本霊異記』の場合」(『明治大学人文科学研究紀要 別冊』12) 등은 다른 자료에 나타난 『부상약기』에 관한 고찰이다.

5) 高木豊(1982) 『鎌倉仏教史研究』岩波書店、前田雅之(1999) 『今昔物語の世界構想』笠間書院、市川浩史(2005) 『日本中世の歴史意識——三國・末法・日本』法蔵館 등의 연구가 있다.

6) 이것에 대해서는 주(1)에서 논한 적이 있는데, 많은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三國仏法伝通縁起』처럼 백제로부터의 전래에 언급이 있는 문헌도 있지만 『今昔物語集』 등은 긴메 천황 시대에 전래했다고 하는 『日本書紀』 등의 기술을 채용하지 않고 사실상 성덕태자를 일본 불교의 개시점으로 정했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후 전개한 불교사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기한 문헌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문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상약기』는 『일본서기』 등 고대문헌과 같은 맥락으로 편찬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상약기』가 제시한 불교 전래에 관한 인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것일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상 도래라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본서기』를 비롯하여 불교 전래를 서술하는 고대문헌들은 불상 도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본 불교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부상약기』도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欽明(긴메이) 천황 13년의 기사(불교 전래)와 이 기사와 함께 인용되는 『善光寺緣起(젠코지 연기)』 등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부상약기』가 제시하는 불교 전래에 대해 불상 도래라는 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부상약기』 불교 전래 기사가 불상 도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찬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백제로부터의 불교 전래를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에 유포되었던 일본 불교사에 대한 이해, 즉 삼국의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부상약기』는 또 하나의 불교 사관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상이라는 관점

『부상약기』 불교 전래 기사를 검토하는데, 불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이다. 불교를 나타내는 말로 「三宝(삼보)」가 있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유명한 十七條憲法(17조헌법)에는 「둘째 독실하게 삼보를 존경해야 한다. 삼보란 불·법·승이다⁷⁾」라고 하는 조문이 있다. 여기에 보이는 불이란 일반적으로 석가를 가르키며, 법은 불교의 가르침이고, 승은 승려(승가)이다. 감히 말하자면 불교 신앙이란 삼보에 대한 歸依(귀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기본 인식은 불교 전래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불교 전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승려나 경전이 들어오는 것을 지표로 하고, 그와 함께 사원 건축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불교 도래설로 유명한 明帝感夢傳法說(명제감몽전법설)에서는 꿈에 나타난 金人(금인)을 찾아서 서쪽(서역)으로 사자를 파견하여 『四十二章經(사십이장

7) 二に曰はく、篤く三宝を敬へ。三宝とは、仏・法・僧なり(日本古典文学大系『日本書紀(下)』 p181)

경』이나 승려가 왔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순도가, 백제에서는 마라난타가, 신라에서는 목호자 혹은 아도가 각각 불교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승려 도래를 지표로 불교 전래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승려가 불교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불교 전래설, 즉 『上宮聖德法王帝説(상궁성덕법왕제설)』, 『元興寺伽藍縁起并流記資財帳(간고지 가람연기 및 유기자재장)』, 『일본서기』 등에서는 기사의 초점이 불상 도래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간고지 가람연기 및 유기자재장』은 다음과 같다.

大倭国(대왜국)의 불법은 斯婦嶋宮(시키시마노 미야)에 도읍을 둔 긴메이 천황의 시대, 즉 蘇我(소가)대신 稲目宿弥(이나메 스쿠네)가 모셨을 때, 이것이 바로 천황의 치세 7년인데, 간지는 무오에 해당하는 해의 12월에 건너왔을 때부터 [불교가] 시작되었다. 백제국 성명왕의 시대 태자의 불상 및 관불의 글 하나, 그리고 불법을 해설하는 책자 한 권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들은 바로는 불법은 확실히 세간무상의 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⁸⁾.

이것은 538년 도래설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본문에 나오는 무오년은 宣化(센카)천황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사에 있는 긴메이 천황과 모순이 된다. 이 자료에서는 백제로부터 불상과 불구, 경전이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승려에 관한 기술이 없다.

또한 같은 책에 다른 부분에도 유사한 기사가 있는데,

장륙불의 광명에 의하면, 広庭(히로니와) 천황은 시키시마 미야에 계셨을 때 백제 명왕(명성왕)이 「신이 들은바로는, 소위 말하는 불법은 이미 세간무상의 법입니다. 천황께서도 수행해야합니다」라고 말했다. 불상, 경교, 법사를 바쳤다⁹⁾.

라고 쓰여 있다. 불상 뒤쪽에 있는 광배에 쓰인 문장 (금석문) 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상의 유래가 기재된 것인데, 역시 긴메이 천황 시대에 불상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다.

8) 大倭国の仏法は斯婦嶋宮に天の下治しめし天國秦春岐広庭天皇の御世、蘇我大臣稲目宿弥が仕える時、天の下治しめす七年、歳は戊午に次る十二月、度り来るより始まり。百済国聖明王の時、太子の像並びに灌仏の器一具、及び仏法を説ける書卷一筐を度して言さく「当に聞く、仏法はこれ世間無上の法、その国も修行すべきなり」と。(日本思想大系『寺社縁起』岩波書店、1975년 p8)

9) 丈六の光銘に曰はく、天皇、名は広庭、斯婦斯麻の宮に在し時、百済の明王上啓さく、「臣聞く、謂はゆる仏法は既にこれ世間無上の法なり。天皇も亦修行すべし」と。仏像、經教、法師を撃げ奉りき。(동 주(8), p20)

그러나 여기서는 한 가지 큰 차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밑줄 부분에 보이듯이 승려가 건너왔다는 문구이다. 실은 이 부분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간고지 가람연기 및 유기자재장』에서도 승려에 관한 기술이 있는 기사와 없는 기사가 있다.

다음으로 聖德太子(성덕태자)의 생애를 쓴 전기이며, 불교 전래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상궁성덕법왕제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문헌은 法隆寺(호류지)에서 전해온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헤이안 시대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편찬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성덕태자전에 관해서는 四天王寺(시텐노우지) 혹은 그 주변에서 편찬된 『聖德太子伝暦(성덕태자전력)』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근대까지 『상궁성덕법왕제설』은 주목되지 않았던 문헌이었다. 그러나 『간고지 가람연기 및 유기자재장』과 마찬가지로 538년 불교 전래설을 전하고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간메이 천황 시대인 무오년 10월12일에 백제국 성명왕은 처음으로 불상과 불경 및 승려들을 보냈다¹⁰⁾.

앞에서 인용한 『간고지 가람연기 및 유기자재장』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시대(천황)가 맞지 않은 점이 문제이지만 자료상으로 이 부분을 소급하는 것은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한 바이다¹¹⁾. 여기서는 역시 승려가 왔다는 기술이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승려에 관한 부분이 없다. 『간고지 가람연기 및 유기자재장』과 『상궁성덕법왕제설』과 달리 552년 불교 전래설을 주장하는 『일본서기』는 「석가불 금동상 일체·幡蓋(번개) 약간·경론 약간을 드리다¹²⁾」라고 할 뿐 승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상과 같이 각각 문헌에 연대 차이가 있지만 일본 불교 전래설은 기본적으로 불상·불구·경전이 건너온 사건이며, 승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러한 점은 불교 전래에 있어서, 중국이나 한국의 문헌에서 보여지는 승려에 대한 시각과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이러한 자료만으로 승려 도래에 관한 「史実(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삼보 중 승려가 없는 상태로 불교가 전해왔다는 『일본서기』의 기사 내용은 『부상약기』에도 계승되어 있었다.

10) 支笏嶋天皇の御世、戊午年十月十二日委に百濟國聖明王は始めて佛像經並びに僧等を度し奉る。(『大日本仏教全書(一一二)』p12)

11) 동 주(2)

12) 釈迦仏の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を獻る。(동 주(7)p100)

3. 『부상약기』 불교 전래 기사

『부상약기』 긴메이 천황 13년의 기사에는 5가지의 불교 전래설이 실려 있다.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서기』에 의거한 기사. 불교가 전달된 이후에 발생한 불교 배척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2. 「一云(한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쓰인 문장이 있는데, 전해온 불상을 높이 一尺五寸(1척5촌)의 아미타상과 높이 1척의 관음과 세지 보살상이라고 한다. 켄코지에 있는 도래불과 같은 형식의 불상이다.
3. 「或記云(어떤 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쓰인 문장이 있는데, 『켄코지 연기』를 짧게 요약한 내용이다. 推古(스이코) 천황 시대 이 불상이 信濃(시나노)로 보내졌다고 한다.
4. 「善光寺緣起云(켄코지 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기사이다. 나중에 크게 전개된 『켄코지 연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5. 「日吉山藥恒法師法華驗記云(히에산 약코 법사가 쓴 법화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용된 「延曆寺僧禪岑記(엔라쿠지 승 켄신기)」이라는 문헌에는 繼體(게이타이) 천황 시대 司馬達(시바닷토)등이 불상을 안치했다는 坂田寺(사카타 대라)의 연기.

이하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서기』에도 기록된 불교 전래 기사를 보고자 한다. 내용은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달되고 천황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장면과, 이 기사에 이어서 신하들이 의견을 말하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이 없는 문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긴메이 천황 13년 임신 겨울 10월13일 신유에 백제국 성명왕(성왕)이 처음으로 금동 석가여래상역가상 일체, 그리고 경론이나 번개 등을 같이 헌상했다. 그 상표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이 가르침은 여러 법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수준이 높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周公(주공)이나 孔子(공자)라고 해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이지만 無量無辺(무량무변)의 福德果報(복덕과보)이 있고, 무상의 보체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隨意宝珠(수의보주: 일이 마음대로 가는 보주)를 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멀리 천축(인도)에서 三韓(삼한)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카도의 나라로 전달하여 도읍에서 유통시킨다면, 불교 경전에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동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황은 이것을 듣고 춤추듯이 기뻐하여 백제에서 온 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여태까지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들었던 적

이 없다. 그러나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 「서쪽 번국이 불상을 헌상해 왔다. 그 얼굴은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것을 예배해야 할 것일까」라고 물었다¹³⁾.

여기까지가 전반부이며, 『일본서기』에 의거한 내용이다. 가장 큰 차이는 백제에서 온 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일본서기』에 있지만 『부상약기』에는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다른 부분은 약간 간략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어서 불교 수용에 대해서 신하들이 의론하는 장면이 쓰인다.

소가 대신 稻目宿祢(이나메 수쿠네)는 「서쪽 나라들은 모두 이것을 예배한다. 일본만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物部大連尾輿(모노노베 오오무라지 오시)는 「우리 나라 왕은 항상 천지에 계시는 180이나 되는 신들을 모시고 있다. 춘하추동 이것을 예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변경하고 다른 나라의 신을 예배한다면 신은 화를 내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황은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소가 대신 덕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소가 대신은 그것을 기뻐하여 小治田(오와리다)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상을 안치했다. 그리고 出世間(출세간)의 법(불교)을 열심히 믿고 다음으로 向原(무쿠하라)에 있는 집을 절로 했다. 이 때 병이 유행했다. 모노노베노 오코시들은 천황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절을 다 태웠다. 이 때 바람도 구름도 없는데, 왕궁이 타 버렸다.¹⁴⁾

이것도 『일본서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사가 불교 배척 부분으로 끝난 점이다. 그 이유를 추측하면 이 문장에 이어서 쓰인 내용과 관련

13) (欽明天皇)十三年(壬申)冬十月十三日辛酉。百濟國聖明王始獻金銅釋迦像體。并經論幡蓋等。其表云。是法於諸法中取為殊勝。難解難入。周公孔子尚不能知。此法能生無量無邊福德果報。乃至成弁無上菩提。如人懷隨意寶。所須依占情。此妙法寶亦然。祈願隨情元所乏少。遠自天竺裳泊三韓。【新羅。高麗。百濟。謂三韓也。】依教奉待。無不尊敬。渡伝帝國。流通畿內。果仏之所記我法東流。天皇聞已。激喜踊躍。詔使者云。朕從昔來。未曾得聞如是微妙之法。然朕不能自決。歷問群臣曰。西蕃獻此法。能生無量無邊福德果報。乃至成弁無上菩提。如人懷隨意寶。所須依情。此妙法寶亦然。祈願隨情元所乏少。遠自天竺裳泊三韓。【新羅。高麗。百濟。謂三韓也。】依教奉待。無不尊敬。渡伝帝國。流通畿內。果仏之所記我法東流。天皇聞已。激喜踊躍。詔使者云。朕從昔來。未曾得聞如是微妙之法。然朕不能自決。歷問群臣曰。西蕃獻仏。相貌端巖。全未曾看。可祀以不。(『新訂增補國史大系(一二)』p28)

14) 蘇我大臣稻目宿祢奏曰。西蕃諸國皆禮之。幽豆秋日本山豆独背哉。物部大連尾輿。中臣鎌子等奏曰。我國家之王天下者。恒以天地社稷百八十神。春夏秋冬。祭拜為事。然而方今改拜番神。恐致國神之怒。天皇曰。宜隨情願付稻目宿祢試令中禮拜。大臣悅受。安置小治田家。勤修出世之業。次捨向原家為寺。【榴木原家。牟久木也。】是時。疾疫盛興。物部尾輿大連等奏曰。不頂臣等之計致此病死縱火播寺。干時無風雲而火災大殿。(동 주 (13)p28)

이 있을 것이다. 즉 불교 배척 운동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가진 켄코지 여래에 관한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상약기』 불교 전래설에서는 앞부분에 『일본서기』에 의거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정사로서의 권위성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서기』 불교 전래 기사는 후대에도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공식적 불교 전래설에 이어서 『부상약기』에서는 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불교 전래설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로 등장하는 것이 다음으로 보는 짧은 기사이다. 이것은 『일본서기』에 없는 내용이다.

같은 해 오오무라지 모노노베 오코시가 죽었다. 어떤 기록에는 「같은 해 임신 10월에 백제 명왕 (성왕) 이 아미타상 (높이는 1척5촌) 과 관음·세지보살상 (높이 1척) 을 헌상했다. 상표문에는 「많은 가르침들 중 불교는 가장 우수합니다. 세상의 도리에서도 불교는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천황께서도 불교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과 법사를 사자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불교를 믿어서 수행해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다. 어떤 기록에는 「시나노 켄코지에 있는 아미타여래상이 바로 이 불상이다. 스이코 천황 시대인 임술년 4월8일 秦巨勢大夫(하타노 코세 다이후)에게 명령하여 나나노로 보냈다」 라고 쓰여 있다¹⁵⁾.

원문에는 「일운」이라고 기재되었을 뿐 출전을 명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 이 문장이 기재된 경위는 분명하기 않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장 다음으로 등장하는 「어떤 기록(혹기)」부터 켄코지 연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켄코지 연기는 백제로부터 「一光三尊(일광삼존)」, 즉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과 세지보살이 좌우로 배치된 불상이 보내왔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여기서는 기사 내용이 불상과 관련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 싶다.

4. 『부상약기』 켄코지 연기와 司馬達等の 신앙

『부상약기』 불교 전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켄코지 연기를 인용한 부분이다. 이것은 「켄코지 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善光寺縁起云)」로 시작하는 내용이

15) 同年。大連物部尾輿薨。一云。同年壬申十月。百濟明王獻阿彌陀佛像。(長一尺五寸) 觀音勢至像(長一尺)。表云。臣聞。万法之中。佛法最善。世間之道。佛法最上。天皇陛下亦應修行。故敬捧佛像經教法師。附使貢獻。宜信行者。或記云。信濃國善光寺阿彌陀佛像。則此仏也。少治田天皇御時。壬戌年四月八日。令秦巨勢大夫奉占請送信乃國云々。(동 주 (13)p28)

다. 『부상약기』는 먼저 존재했던 문헌에서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문헌은 존재하지 않다.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첼코지 연기는 『부상약기』에 등장하는 이 인용문이다.

다음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전문을 5 문단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 각각의 문단 번호는 편의상 쓰는 것이다.

(1)긴메이 천황 13년 임신 10월13일 아미타상이 백제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왔다. 그리고 일본 撰津(셋쓰) 難波(나니와)항에 표착했다. 그 후 37년이 경과해서 처음으로 불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따라서 이 3체는 최초의 불상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本師如來(본사여래)라고 부르고 있었다.

(3)스이코 천황 10년 임술 4월8일 신이 내린 말이 있어서 천황은 즉시 명령하여 이 불상을 시나노 水内(마즈우치)군으로 이동시켰다. 최초의 불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영험들이 있었다.

(4)이 불상은 원래 석존이 아직 살았을 때 천축 毘舍離國(비사리국)에 살고 있던 月蓋長者(월개장자)가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서방을 향해서 예배하여 열심히 미타여래·관음·세지보살을 빌었는데, 이 삼존불이 나타나 월개장자 덕의 문에 살게 되었다. 월개장자는 이 불상을 보고 금동으로 그 모습을 모사하고 주조한 것이 이 불상이다.

5) 월개장자가 죽은 후 이 불상은 하늘을 날아 백제국에 도착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가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왔다. 현재 첼코지에 있는 삼존이 바로 이 불상이다¹⁶⁾.

내용적으로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편찬되어 온 첼코지 연기와 유사하지만 분량으로는 상당히 짧다. 아마도 선행하는 짧은 연기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증폭되었다고 생각하면 무난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고 싶다. 과연 「처음으로」가 『부상약기』(혹은 첼코지 연기)의 인식을 나타낸 것인지, 기사의 문맥에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실제로는 긴메이 천황에게 보내 준 불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한 것인지 애매하지만, 이야기 자체가 이 불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나중에 많은 繪卷(두루마리)가 제작되는데, 그림으로 「금동불」이 더욱 강조되어 빛나는 불상으로서 그려지게 된다.

16) 善光寺縁記云、1) 天国排開広庭天皇治十三年壬申十月十三日、從百濟國、阿彌陀三尊浮浪來。着日本國撰津國難波津。其後經計卅七箇年、始知有佛法。2) 仍以此三體、為佛像之最初。故俗人号之、悉曰本師如來。3) 小墾田推古天皇十年壬戌四月八日、依仏之託宣、忽下論言。奉移信乃國水内郡。佛像最初、靈驗揭焉。4) 件佛像者、元是釈尊在世之時、天竺毘舍離國月蓋長者、隨釈尊教、正向西方。遙致禮拜。一心持念彌陀如來・觀音・勢至。爾時三尊促身於操手半、現住月蓋門。長者面見一仏二菩薩。忽以金銅、所奉鑄寫之仏菩薩像也。5) 月蓋長者遷化之後、佛像騰空、飛到百濟國。已經一千余年、其後浮來本朝。今善光寺三尊、是其佛像也。(동 주 (13)p28-9)

게다가 이것은 『일본서기』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왕이 일본으로 보냈다고 기술되었던 불상이 『부상약기』젠코지 연기에서는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도착했다고 쓰여 있다. 불상이 초점이 되고 자주적으로 백제에서 건너온 것처럼 묘사되는 반면 백제왕의 역할이 후퇴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는 불상 이외에 경전이나 불구 등도 전해왔다고 쓰여 있었는데, 『부상약기』젠코지 연기에서는 불상이 불교 전래의 상징이 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이어서 『부상약기』는 불상 안치에 관한 흥미로운 설화를 인용한다. 이것도 현존하지 않은 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부상약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히에산 앓코 범사 범화힘기에는 엔라쿠지 승 젠신기에 「제27대 繼體(게타이)천황이 즉위 16년에 당나라 漢人(한인)이며 案部(안베)마을의 주인인 시바 닛토가 그 해 봄 2월 일본으로 건너오고 바로 大和國(아미토국) 高市郡(다케치군) 坂田原(사카타바라)에 초당을 만들었다. 본존을 안치해서 그 불상을 귀의 예배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당나라의 신이라고 소문냈다」라고 쓰여 있다. 연기에 나온 문장이다. 은자가 이 문장을 봤는데, 긴메이 천황 시대 이전에 당나라 사람이 불상을 가지고 왔는데, 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⁷⁾.

공식적인 것이 아닌 사적전래로 이 기사를 근거로 「(역사적)사실」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 자체는 『부상약기』에 처음으로 인용된 逸文(일문)인 사카타데라의 「연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사카타데라 연기는 『일본서기』用明(요메이) 천황 2년(586)의 기사에도 보이는데,

천황이 고생하는 중기 병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미 임종으로 알려져 있었을 때에, 鞍部多須奈(구라노쓰쿠리 다수나: 시바닛토의 아들)가 천황 가까이 가서 「저는 천황을 위해서 출가하여 불교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륙 불상 및 절을 세우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천황은 이것을 듣자 슬퍼해 큰 소리로 울었다. 이것이 현재 南淵(미나미부치) 사카타데라에 있는 목제 장륙 불상과 挾侍(협시) 보살이다¹⁸⁾

라고 한다. 『부상약기』와는 내용이 다르지만 불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한 부분

17) 日吉山藥恒法師法華驗記云。延曆寺僧禪岑記云。第廿七代繼體天皇即位十六年壬寅。大唐漢人案部村主司馬達止。此年春二月入朝。即結草堂於大和國高市郡坂田原。安置本尊。歸依禮拜。举世皆云。是大唐神之。出緣起。隱者見此文。欽明天皇以前。唐人持來佛像。然而非流布也。(동 주 (13)p29)

18) 天皇之瘡轉盛。將欲終時、鞍部多須奈(司馬達等子也)。進而奏曰、臣、奉爲天皇、出家修道。又奉造丈六佛像及寺。天皇爲之悲慟。今南淵坂田寺木丈六佛像・挾侍菩薩是也。(日本古典文学大系『日本書紀(下)』p160)

은 공통된다. 병의 치유라는 현세이익을 추구한 내용은 고대적인 불교신앙의 일각을 보여주지만, 이 이야기도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상약기』는 『日本書紀』를 기점으로 불상 도래라는 관점에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즉 찾아낸 기사를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한 주제(불상 도래)에 맞는 기사를 골라서 불교 전래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부상약기』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불상 도래에 관한 이야기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헤이안 시대 말기 大江親通(오오에 노 미치치카)가 南都(남도: 나라를 말한다) 7대사들을 순례했을 때 기록한 『七大寺日記(칠대사일기)』(1106년)에 興福寺(코후쿠지)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금당에 안치된 역사여래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불상 뒤에 동쪽을 향해서 금동 석가삼존상이 있다. 중앙은 3척 정도의 불상이다. 연꽃 무늬와 垂裳(수상)이 있다. 2체의 보살 입상도 상당히 신묘한 모습이다. 일본 제30대 긴메이 천황 시대 백제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전달되었다. 일본 최초의 불상이다¹⁹⁾.

과연 이 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헤이안 시대 말기에도 실제로 안치되어 있는 불상에 대해 그 유래가 긴메이 천황 시대였다는 전래설이 전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긴메이 천황 시대라는 설명은 『간고지 가람연기 및 유기자재장』이나 『일본서기』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삼국의식과는 다른 불교사가 확실히 계승되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부상약기』 불교 전래설을 불상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 책은 『일본서기』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도 인용하여 일본 불교 전래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시된 자료는 모두 불상 도래가 초점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헌들이 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불상 도래가 불교 도래를 상징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다룬 『부상약기』 불교 전래설은 같은 시대, 즉 헤이안 시대 말기쯤부터 서서히 유포되기 시작했던 삼국의식과는 다른 것이다. 삼국의식을 바탕으로

19) 仏後ニ東向ニ金銅ノ釈迦三尊像アリ。中尊三尺許居仏。蓮華ニ垂裳アリ。二菩薩像立、尤神妙云々。本朝第卅代欽明天皇御世ニ 從百濟國始奉渡、本朝最初ノ像也。(『校刊美術史料(上)』p23)

한 역사관에서는 불교가 인도 (천축) →중국 (진단) →일본 (본조) 로 전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는데, 『곤자쿠 이야기 집』이나 『삼국불법전통연기』 등 이 틀을 전제로 일본불교사를 서술한 문헌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을 전제로 하면 일본 불교의 시발점이 긴메이 천황이 아니라 성덕태자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곤자쿠 이야기 집』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의 제11권은 일본 불교사를 서술한 것인데, 불교에 관한 인물과 사찰의 역사가 설화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불교사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은 성덕태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긴메이 천황 시대의 불상 전래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그 후에 탄생한 성덕태자를 일본 불교의 기점으로 하는 역사관이다. 성덕태자는 중국 천태종을 시작한 南岳慧思(남악혜사)가 다시 태어난 인물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백제→일본이라는 경로와 다른 불교 전래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덕태자전 중 가장 근본이 되는 『聖德太子伝暦(성덕태자전력)』 (10세기 쯤) 에는 명확한 삼국 의식이 보이지 않고 긴메이 천황 시대에 관한 기사도 있다. 삼국 의식이 확실히 보이는 문헌이 『곤자쿠 이야기 집』인데,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부상약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12세기초)이다. 『부상약기』가 전시대의 사관 (혹은 문헌의 기사 내용) 을 계승하면서 불교사를 구축했다고 한다면, 『곤자쿠 이야기 집』은 그것과 다른 발상, 즉 후발적인 사관을 바탕으로 한 불교사의 틀을 지지했다고 할 수 있다.

【参考文献】

高木豊(1982) 『鎌倉仏教史研究』 岩波書店

前田雅之(1999) 『今昔物語の世界構想』 笠間書院

市川浩史(2005) 『日本中世の歴史意識——三国・末法・日本』 法蔵館

松本眞輔(2011) 『四天王寺와 善光寺의 縁起에서 본 백제 인식--불교 전래설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7-2)

要 旨

本論文は、『扶桑略記』を素材として、平安時代末期の日本仏教伝来に関する認識を仏像という側面から考えようという試みである。日本仏教伝来説については、古代文献において、百済から仏教が渡来したという内容が伝えられていた。これらには年代の問題もあるが、内容上は百済から渡来した仏像焦点があてられていた。

『扶桑略記』は一一世紀末頃に比叡山の僧である皇円が編纂したとされる史書である。同書は『日本書紀』や善光寺縁起を利用しつつ仏教伝来に関する歴史を叙述しており、その内容は、やはり仏像を中心とした百済からの仏教伝来説であった。

一方、日本には平安時代から三国意識に基づいた仏教史観が広がっていた。これは、仏教がインドから中国を経て日本に伝わってきたという歴史観を指す。『扶桑略記』と同時代の『今昔物語集』や鎌倉時代の『三国伝灯記』や『三国仏法伝通縁起』、室町時代に編纂された『三国伝記』など、三国史観を前提に日本仏教史を記述した文献が少なくない。ここには百済の欠落という大きな問題が内包されており、古代文献とは大きな差異が見られる。

『扶桑略記』はこうした歴史観とは異なる内容を持った書と評価できるだろう。

キーワード：扶桑略記(Fnsoryakki)、善光寺 (Zenkouzi temple)、
仏教伝来 (Introduction to Buddhism)、『日本書紀』(Nihonshoki)、
寺刹縁起(Origine of temple)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